행복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2018 3 22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지못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분명 나 인데 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과거가 만든 결과물인것을 알았다. 과거의 좋은시간, 추억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또한 많았다.좋은시간들은 좋은 결실이 있기에 만족하지만 나쁜 시간 또한 예수그리스도안에서 새롭게 될수 있다는 소망의 메세지가 위로가 된다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을 드립니다.
-김희재 집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함께 읽으며, 기존의 영성 모델은 보이는 10%가 아닌 수면 아래 잠긴 90%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조금도 건드려 지지 않은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정서,건강한 감정과 영성이 통합 되어야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책을 함께 읽으며, 서로 나눌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고, 여러 생각들을 나누면서 많이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책을 통하여 정리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해 보면서, 더욱 성숙된 크리스챤의 삶이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정 사모-

다함께 모여 책일고 서로가 느낀점을 나누고 내인생과 삶의 방향을 돌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는 시간보다 더 귀중한 가르침이 책속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책이 기다려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영적 인성이며 자질로서 인생에서도 성숙하게 살아갈수 있는 삶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쳔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Jane Kwon-

이책을 통해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여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하고 그생각이 어느순간에 제삶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성도들과 뜻깊은대화와 그대화속에 제자신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생각과 마음을 다시한번 점검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진택 집사-